

화학연구원, 전략물자 자율준수 시범사업

한국화학연구원이 전략물자 자율준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화학연구원은 수출통제 관리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국내 연구기관 최초로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구축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4월8일 발표했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는 대량파괴무기와 개발·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이나 기술 등의 수출과 관련해 기관 내 수출거래 심사기구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이후 허가기관에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10월까지 진행되며 화학연구원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기술 등의 안전한 해외 이전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화학저널 2010/04/08>